광복 이전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

■ **대한 민국 임시 정부(충칭)**
- 한국독립당(김구, 1940)
- 대한 민국 건국 강령 발표(1941)
  → 조소앙의 삼균주의 바탕
  →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 실현
-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제 수립
- 조선 민족 혁명당, 조선 의용대 흡수(1942)

■ **조선 독립 동맹(1942)**
- 중국 화북 지방의 사회주의 계열
- 조선 의용군 편성, 무장 투쟁 전개
- 조선 민주 공화국 건설 추구

■ **조선 건국 동맹(1944, 좌 · 우 합작)**
- 여운형 등의 국내 민족 지도자들
- 일제 타도, 민주주의 국가 건설 추구

독립 약속과 8 · 15 광복

- 카이로 회담(1943. 11) : 독립 최초 약속
- 얄타 회담(1945. 2) : 소련군 참전 결의
- 포츠담 선언(1945. 7) : 독립의 재약속
- 광복(1945. 8. 15) : 일제의 항복

광복과 군정

건국 준비 위원회(1945. 8. 15)

- 조선 건국 동맹이 모체
- 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 이양 약속
- 여운형(사회주의), 안재홍(민족주의) 중심
  → 좌 · 우 세력과 각계각층이 참여
  → 과도기의 국내 질서 유지 + 식량 · 생필품 확보
  → 민중의 폭넓은 지지
-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1945. 9, 좌익 주도)
  → 미군정의 부정, 일부 민족주의 세력의 이탈

한국 민주당(1945. 9. 16)

- 지주와 기업가 중심(친일파)
- 송진우, 김성수 등
- 미군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군정(미국, 소련)

-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명분
- 미 · 소의 38도선 분할 점령
- 미군정(1945. 9. 8) : 직접 통치 방식, 한민당 중용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부정
  →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부정
  → 이승만 :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 소군정(1945. 8. 24) :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건국 준비 위원회 인정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12)

- 미(트루먼) · 영(처칠) · 소(스탈린)
-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
-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 5년 간의 신탁 통치
- 좌 · 우 대립의 격화
  : 우익 세력 - 반탁 → 반공 · 반소
  : 좌익 세력 - 반탁 → 협정 지지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

- 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1946. 3) 결렬
  → 미국 : 모든 정당과 단체 참여
  → 소련 : 찬탁 단체만 참여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좌 · 우 합작 운동(1946. 6 ~ 1947. 7)

- 여운형, 김규식 중심 ⇒ 미군정의 지원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이승만 · 김구 · 남로당 불참
- 미 · 소 공동 위원회 속개 성명
- 2차 미소공위 결렬(1947. 5) + 여운형의 암살로 결렬

한국 문제 유엔 상정(1947. 9)

- 유엔 총회의 결의(1947. 11)
  →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 소련 : 유엔의 한국 임시 위원단 입국 거부
- 유엔 소총회의 결의(1948. 2)
  →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의
- 좌익 : 남한 정부 수립 저지 투쟁 전개
- 찬성 : 이승만, 한국 민주당
- 반대 : 김구 · 김규식, 중도 세력

남북 협상(1948. 4)

- 미 · 소 철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 남북 협상 주장(통일 정부 구성 주장)
  → 남북 연석 회의, 남북 지도자 회의
  → 실패 : 합의를 관철할 수 있는 실제 방안 無
- 5 · 10 총선거에 대한 불참 선언

단독 정부 수립 반대 투쟁

- **제주 4 · 3 사건(1948. 4. 3)**
  →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 Vs 군경 · 서북청년단
- **여수 · 순천 10 · 19사건(1948. 10. 19)**
  → 국가 보안법의 제정(1949)

신탁 통치에 대한 반응

○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 운동을 전개하자.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중략)…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삼상 결정지지 운동〉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하여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을 중심으로 소련이 신탁 통치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여 반탁과 함께 반소·반공 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공산당 등 좌익이 중심이 되어 처음에는 반탁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모스크바 협정의 본질은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파악하여 협정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중들은 우익 주도의 반탁 운동에 큰 호응을 하였다. 이렇게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이념간의 대립이 격하되면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참가 단체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건국 준비 활동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均)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公費) 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혁파하여 제거할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소멸하고 소수 민족의 침몰을 모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낮이를 없이 하고 동족(同族)과 이족(異族)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강령〉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가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해 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 화북 지방의 사회주의 계열 결성한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 의용군을 편성하여 항일 전쟁을 수행하였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직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좌우 합작의 건국 준비 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광복 후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점차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와 그 지부에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좌익의 주도하에 조선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건국 준비 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모스크바 3상 회의

1.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2.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위해 남조선 미합중국 관할구와 북조선 소련 관할구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3. 공동 위원회의 역할은 조선인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도와 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선 임시 정부 및 조선민주주의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공동 위원회는 미 · 영 · 소 · 중 4국 정부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 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의되고, 이에 따라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가 결의되었다. 신탁 통치 결정이 내려지자 좌익은 찬탁을 우익은 반탁을 주장하면서 이념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회의에 참가할 단체에 대한 이견으로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었다.

좌 · 우 합작 7원칙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좌 · 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 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3. 몰수 · 유(有)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 분여 및 중용 산업 국유화
4.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처리할 것
5. 남북 좌 · 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해 설

좌우익 대립이 심화되고 일부 우익의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 속에서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파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 등 좌익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이 여기에 불참하고,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속에서 미군정도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하였다.

용어 해설

■ **카이로 회담(1943)**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전후 처리를 논의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 수뇌부들은 '한국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고 결의하였다.

■ **얄타 회담(1945)** 얄타에서 영국, 미국, 소련이 전쟁 수행 정책과 전후 처리를 논의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미 · 소 공동 위원회**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덕수궁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은 전라도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공식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벌였다.

기본 학습 문제

NOTE

1. 그림에 나타난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04. 10. 교육청)

〈보 기〉

ㄱ. (가)는 신탁 통치를 받더라도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ㄴ. (나)의 입장은 이후 반소 · 반공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ㄷ. 김구는 (가)의 입장, 이승만은 (나)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ㄹ. (가), (나) 모두 미 · 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광복 후 주요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03. 12. 교육청)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 10)

〈보 기〉

ㄱ.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ㄴ. 토지, 철도 등 주요 산업 시설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ㄷ.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 · 10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ㄹ. 제주도 4 · 3 사건과 여수 · 순천 10 · 19 사건을 주도하였다.
ㅁ.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sotamshin

NOTE

3. 다음은 지문을 읽고 (가), (나) 발언의 주인공들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도표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나)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구분	(가)	(나)
①	미 군정 당국에 대한 태도	우호적	비판적
②	무장 항일 투쟁에 대한 평가	부정적	긍정적
③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반응	반대	지지
④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⑤	일제 강점기 중의 주 활동 지역	미국	중국

4. 다음 글의 맥락에서 볼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홀연 전화가 울렸다. ……
"왜적이 항복한답니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시안과 푸양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직적 ·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 무기를 휴대시켜 산둥 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함으로써, ……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 김구, 백범일지

〈보 기〉

ㄱ.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군 행세를 하였다.
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안이 합의되었다.
ㄷ.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ㄹ. 광복 직후 노동자들은 공장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OTE

5. 다음과 같은 가상 대화에 직접 영향을 준 사실로 옳은 것은?

(2006. 3. 교육청)

① 6 · 25 전쟁 종결
② 제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
③ 미 국무장관의 '애치슨 라인' 발표
④ 유엔 소총회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 보도

6. 그림의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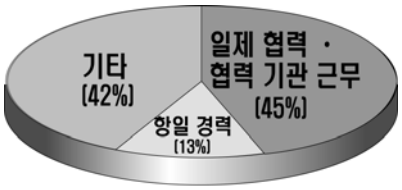
(2007. 3. 교육청)

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④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왔다.
⑤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 · 우익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sotamshin

NOTE

7. 다음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06. 10. 교육청)



고위 관료의 해방 이전 경력
(제1공화국 ~ 제3공화국)

〈보 기〉

ㄱ. 미군정의 통치 정책
ㄴ.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
ㄷ. 반민 특위 활동의 실패
ㄹ. 건국 준비 위원회의 결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어떤 인물이 발표한 신년사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이 인물의 활동을 옳게 추론한 것은?(2007. 10. 교육청)

과거 1년간 우리 민족 내부의 정치 운동은 민족적 자주성을 망각한 채 편파적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즉, 일부 노선은 친소 · 반미의 행동이라고, 또 일부 노선은 친미 · 반소의 행동이라며 서로 비판하면서 편을 가르고 민족상잔의 투쟁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 두 노선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입장을 망각한 것으로 민족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 양익의 협조에 의한 민주주의 임시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는 것이며, 미 · 소 양국의 조선 문제에 관한 진정한 협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노선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철저히 청산하는 데서 비로소 민족의 자주 독립을 목표로 한 민주 단결 노선을 확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③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여 이를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칭하였다.
⑤ 지주와 기업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한국 민주당을 만들었다.

수능 유형 분석

NOTE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좌 · 우익 정치 세력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5. 9. 모의수능)

> 1946년 5월 미 · 소 공동 위원회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좌우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좌 · 우익은 합작 원칙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좌우 합작 위원회가 제시한 7원칙은 좌 · 우익 핵심 정치 세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좌 · 우익이 내세운 합작 조건의 차이는 합작을 가로막은 일차적 요인이었다.

① 미 · 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한다.
② 미 군정의 입법 기구 창설을 반대한다.
③ 토지의 유상 몰수와 무상 분배를 반대한다.
④ 미 군정은 정권을 인민 위원회로 즉시 이양하여야 한다.
⑤ 친일파 민족 반역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

출제 예상 문제 2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06. 수능)

〈보 기〉

ㄱ. 이번에 임시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민족 분열은 피할 수 없네.
ㄴ. 이 회의의 결정 때문에 우리 나라 독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
ㄷ. 카이로, 포츠담 선언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실현될 수 없게 되었네.
ㄹ. 우리 나라 독립은 연합국의 협조 정신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sotamshin

NOTE

출제 예상 문제 3

다음 결정에 대한 정치 세력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 9. 모의수능)

> ○ 한국을 독립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 ○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 · 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 미 · 영 · 중 · 소 4개국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①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한국 민주당은 소련이 신탁 통치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탁 운동을 반소 운동으로 몰아갔다.
③ 김구는 미 · 소 양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의 협상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조선 공산당은 이 결정의 본질이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김규식과 여운형은 남북을 아우르는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한 뒤 신탁 통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출제 예상 문제 4

다음은 1948년 초 어느 회의에 참가한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 수능)

> (가) 지금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 뿐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나) 나는 항상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남북 연석 회의는 잘 진행되었다. …(중략)… 지난 세월 나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지만, 지금부터는 조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다.

① (가)는 즉각적인 독립 정부의 수립을 위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다.
② (나)는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③ (가), (나)는 충칭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④ (가), (나)는 5 · 10 총선거와 대한 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⑤ (가), (나)는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NOTE

출제 예상 문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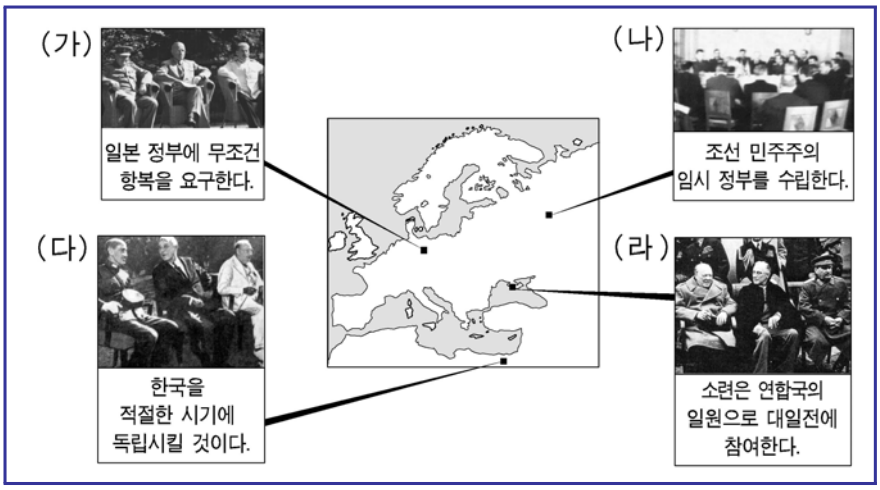
다음은 어느 위원회가 제시한 7개항의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7. 9. 모의수능)

1.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 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4.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위원회가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결정하게 할 것
5. 정치 운동자 석방에 노력하고 남 · 북, 좌 · 우의 테러 행동을 중지토록 할 것
6. 입법 기구의 권한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 집회 · 결사 · 출판 · 교통 · 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① 미 군정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② 이 원칙은 친일파 처벌 여론을 반영하였다.
③ 이 원칙은 김구가 암살당한 현실을 고려하였다.
④ 위원회는 중도적 통일 정부 수립을 지향하였다.
⑤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출제 예상 문제 6

그림은 전후 한반도 문제 처리와 관련된 국제 회의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 수능)



① (가)는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분할 점령을 결정하였다.
②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개최되었다.
③ (다)는 신탁 통치안을 제기하였다.
④ (라)에는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부가 참가하였다.
⑤ (다)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방안이 합의되었다.

sotamshin

NOTE

출제 예상 문제 7

다음 자료에 제시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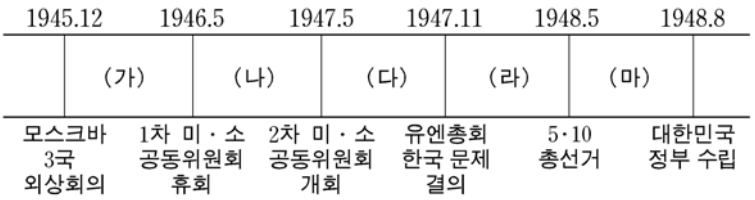
(2008. 9. 모의수능)

> ○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중략)…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우리 위원회는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함으로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① 신탁통치 실시에 반대하였다.
②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도하였다.
③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④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활동하였다.
⑤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출제 예상 문제 8

연표의 (가) ~ (마)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u>않은</u> 것은?(2009. 수능)



① (가) -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② (나) -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③ (다) -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④ (라) - 김구는 선거 불참을 발표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⑤ (마) - 국회는 삼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 하였다.